

국내 교양중국어 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임연정**

— 목 차 —

1. 서론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범위
 - 2) 분석방법
4. 분석결과
 - 1) 연대별 양적 분석
 - 2) 연구방법 분석
 - 3) 연구주제 분석
5.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대학의 교양중국어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그동안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대 초반 시작된 중국어교육 열풍에 따라 대학의 교양중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효과적인 대학 중국어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의 교양중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그 주된 흐름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총 107편의 학술지 논문과 19편의 학위논문을 수집하였고 중국어학 및 중국어교육, 그리고 기타 외국어교육 등의 선행연구를 기반으

* 이 연구는 2023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조교수

로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을 확립하였다. 분석 기준을 기반으로 연대별 양적 분석, 연구 방법 분석, 연구주제 분석 등을 다각도로 실시하였고, 향후 관련 연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대학 중국어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키워드: 대학 중국어교육, 교양중국어 연구, 연구동향, 연구방법, 연구주제

1. 서론

21세기 들어 중국의 경제력이 상승하고 세계 무대에서 G2로 급부상하면서 중국어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漢語熱’라고 표현되는 중국어교육 열풍이 점차 우리나라에도 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과 함께 각 대학은 전공 뿐 아니라 교양교육 과정에서의 중국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중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능력은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하나의 기본적인 역량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으로서의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및 사회적 요구와 함께 전공 외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양중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교양중국어 교육의 강화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역량 강화 뿐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중국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 더 나아가 중국어 교육의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교양중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 무엇보다 관련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교육과 연구는 상호보완적인 관계

로 성장하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후 관련 연구의 확대 및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분석하여 그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교양중국어 교육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향후 관련 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우선 교양중국어에 포함된 중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우선 2000년대 결과를 살펴보면 신승희(2004)는 교육대학원에서 발간된 학위논문을 분석하였는데, 학위논문의 연구 경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박용진(2005)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발표된 중국어교육 분야 논문의 연구 범주 및 방법을 분석하면서, 중국어교육 연구는 우리만의 연구 방향과 성과를 가질 수 있는 학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영호(2005)는 2004년까지 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중국어교육 관련 논문 분석을 통해 향후 보완점을 함께 제시했다. 이들 연구는 비교적 초기에 진행된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의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어서 2010년대 연구를 살펴보면 조윤주, 한용수(2014)는 2013년까지 발표된 중국어교육 관련 논문을 맹아기, 도약기, 발전기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 흐름을 분석하였고, 향후 개선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이현아, 김민채, 김영환(2014)도 2005년부터 2014년까지에 발행된 중국어교육 관련 국내 학술지의 연구동향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나, 최선진(2021)은 중국어교육 연구 전문지인 『중국어교육과 연구』에 2005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게재된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는데, 비록 하나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지만,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라

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외에도 중국어교육 내 한 분야를 특정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유재원(2009)은 오류 분석 연구, 양준기, 최재수(2012)는 중국어 발음교육, 박은미, 위수광, 임춘영(2012)은 중국어 문법교육, 오현주, 노수미(2013)는 중국어 어휘교육, 박경송과 심지연(2013)은 중국어 기능교육, 최금실, 오현주(2013)는 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특징 및 발전 방향을 고찰하였다. 또 문유미(2015)와 오유정(2018)은 중국어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면서 중국어교육 관련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각 시기별로 중국어교육 및 중국어학 연구 관련 흐름 및 특징을 분석한 연구가 꾸준히 전개되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학의 교양중국어 교육을 연구범위로 한정하고, 그 연구 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학의 중국어 교육을 분석하며 교양중국어 교육을 언급한 연구는 있었지만, 교양중국어 연구만을 집중적으로 고찰한 결과는 찾기 힘들었다.²⁾

이에 본 연구는 2022년까지 발표된 국내 교양중국어 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 및 학위논문을 분석하여 그 흐름을 고찰하고, 향후 전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범위

본고는 교양중국어 관련 연구를 진행한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 및 석박사

2) 이현아, 김민채, 김영환(2014)이 연구대상에 교양 학습자를 명시하여 분석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논문의 내용이 교양중국어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연구 특성 및 흐름 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위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우선 2023년 1월 30일과 31일에 한국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기반으로 연구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다. RISS의 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교양중국어’, ‘교양’, ‘중국어’, ‘대학중국어’, ‘대학’, ‘중국어’, ‘教養’, ‘中國語’, ‘教養’, ‘漢語’ 등의 키워드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 전국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의 중국어 과목명이 ‘기초중국어’, ‘초급중국어’, ‘중국어초급’, ‘중국어입문’, ‘실용중국어’, ‘생활중국어’, ‘중국어1’, ‘중국어2’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키워드로도 모두 검색하였다.

이어서 검색 자료에서 제목, 학술지명, 게재 연도 등이 일치하는 중복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문 등을 1차적으로 삭제하였다. 그리고 각 논문의 초록, 목차, 주제어 등을 다시 검토하여 전공으로서의 중국어교육 연구, 중고등학교의 중국어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연구, 일반 중국어학 연구, 중국문학 연구 등의 연구를 2차적으로 제외하였다. 논문의 초록 등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논문의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교양중국어와 관련이 없는 연구를 최대한 배제하였다. 이와 같은 검색 및 여과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학술지 게재 논문 107편, 학위논문 19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분석 자료를 토대로 연대별 양적 분석, 연구방법 분석, 연구주제 분석 등을 실시하여 교양 중국어교육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우선 연대별 분석은 관련 논문이 검색된 연도를 4-5년의 적절한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학술지 게재 논문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를 5년 간격으로 나누고, 석박사 학위논문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를 4년 간격으로 나누어 양적 분석을 통해 그 흐름을 고찰하였다.³⁾ 그리고 연구방법 분석에서

3) 석박사 학위논문은 부득이하게 연구 초기인 2002-2006년은 5년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그 시기의 연구결과가 적을 뿐 아니라 4년 설정과 5년 설정에 포함되는 논문 수에 차

는 연구방법을 ‘문헌+ 양적 및 질적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양적+ 질적 연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편 연구주제 분석은 일반 중국어학 및 중국어교육 연구, 그리고 기타 외국어교육 연구 등을 기반으로 <표 1>과 같은 분석 기준을 확립하였다.

<표 1> 연구주제 분석 기준

분류	상위범주	하위범주
A	교육과정	교육과정 설계, 교수요목 개발, 비교과 등
B	교수·학습방법	교수법 및 교수설계
		교육매체(온라인, 플립러닝, 블렌디드 러닝, 멀티미디어 활용 등)
C	교수·학습내용	종합, 언어요소 및 기능, 문화
D	교재	교재 분석, 교재 개발
E	평가	평가 방법, 평가 모형
F	학습자	인식 및 요구분석 ⁴⁾
		학습심리(동기, 불안, 태도, 책략 등)
		습득 및 오류 분석
G	교수자	원어민 교수, 교수자 인식 및 요건

중국어교육의 연구 영역 및 분류 방법 등을 고찰한 신승희(2004), 박용진(2005), 유재원(2008), 정윤철(2012)의 연구와 대학 교양영어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하명애(2017)의 분석 기준 등을 참고하였다.⁵⁾

이가 없어 편의상 5년으로 설정하였고, 나머지 시기는 모두 4년 간격으로 분석 연대를 나누었다.

- 4) 학습자 인식 및 요구분석 연구는 설문조사 등의 양적연구 방법이나 면접 등의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교양중국어 교육과정이나 교육방안 등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등을 분석하거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요구 사항을 조사한 연구를 의미한다.
- 5) 신승희(2004)는 중국어어음과 어음교육, 중국어어휘와 어휘교육, 중국어문법과 문법교육, 한자와 간체자교육, 중국문화와 문화교육, 교수학습방법, 교재연구, 교육평가, 교사, 언어기능별 연구, 중국어습득, 중국어 조기교육, 중국어 학습효과, 학습자 중심 연구, 중국문학, 중국철학사상, 한중대비, 번역, 기타 등의 19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 박용진(2005)은 제2언어습득, 평가 및 교재, 교수법, 언어기능교육, 교육사 등의 상위 범주를 제시한 후, 다시 하위 범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처음으로 연구 영역을 상위 및 하위로 분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유재원(2008) 내용론, 습득론, 교수론, 교재

우선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수·학습내용, 교재, 평가, 학습자, 교수자 등 7개의 상위범주를 설정한 후, 최종적으로 10개의 하위범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과정에는 교육과정 설계, 교수요목 개발, 비교과 등이 포함되고, 교수·학습방법은 교수법 및 교수설계와 교육매체(온라인, 플립러닝, 블렌디드 러닝, 멀티미디어 활용 등) 등 두 개의 하위범주를 포함한다. 교수·학습내용에는 종합, 언어요소, 언어기능, 문화 등이 포함되며, 교재에는 교재 개발 및 교재 분석, 평가에는 평가 방법, 평가 모형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학습자 요인은 크게 인식 및 요구분석과 동기 및 불안, 태도, 책략 등의 학습심리, 습득 및 오류분석 등 세 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교수자에는 원어민 교수, 교수자 인식 및 요건 등이 포함된다.

4.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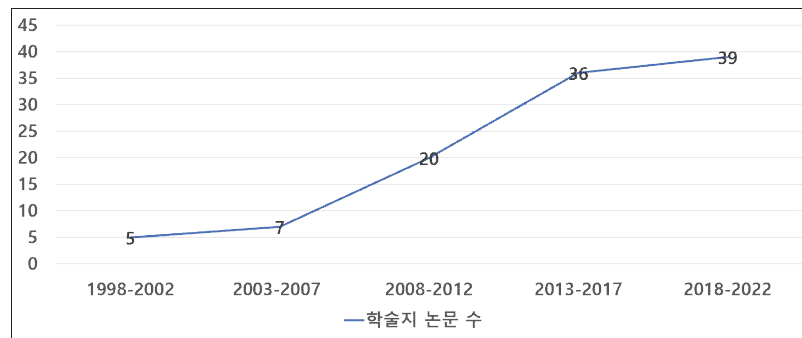
1) 연대별 양적 분석

우선 교양중국어 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대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그림 1]과 같다.

론, 평가론, 도구론, 교사론, 일반론 등의 8개 영역을 제시한 후 각 영역에 포함되는 대주제와 소주제를 다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정운철(2012)은 중국어교육 영역을 거시적 연구와 미시적 연구로 크게 분류한 후 거시적 연구에는 통시적 교육 현황, 공시적 교육현황, 미시적 연구에는 교육과정, 교육내용, 습득분석, 교육방법, 교재, 과정평가 등을 제시하고 다시 하위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하명애(2017)는 교육과정 및 교육방안, 수준별 수업, 교수 학습법, 교수법, 교재 및 학습자료,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목적과 내용, 요구분석, 인식조사, 학습심리, 교수요인, 평가방법 및 도구 등 10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2〉 연대별 학술지 논문 수 및 비율

발행 연도	1998-2002	2003-2007	2008-2012	2013-2017	2018-2022	합계
논문 수	5	7	20	36	39	107
비율(%)	4.7	6.5	18.7	33.6	36.4	100.0



[그림 1] 학술지 논문 수의 연대별 추이

결과를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22년까지 관련 논문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특히 2000년대 후반에 관련 연구가 급증하였고, 2008년-2012년에 20편(18.7%)의 논문이 발행되어 연구가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13-2017년에 36편(33.6%)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2018년-2022년에는 가장 많은 39편(36.4%)의 논문이 발표되어 이 두 시기에 약 70%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2013-2022년의 연도별 연구실적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2013-2022년 연도별 학술지 논문 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논문 수	5	9	6	11	5	8	9	10	7	5
비율(%)	4.7	8.4	5.6	10.3	4.7	7.5	8.4	9.3	6.5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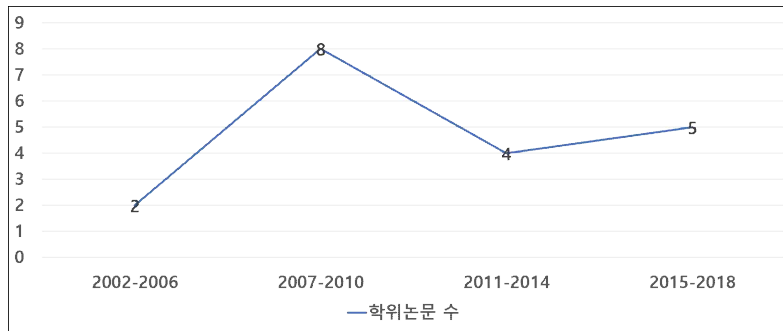
결과를 보면 2016년에 11편(10.3%)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020년에 10편(9.3%), 2014년과 2019년에 각각 9편(8.4%)의 논문이 발행되었다. 하지만 2020년 이후에 2021년에는 7편(6.5%), 2022년에는 5편(4.7%)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을 생각해볼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중국과의 교류 감소 등이 교양중국어 교육 및 연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관련 학위논문의 연대별 추이는 <표 4>와 [그림 2]와 같다.

<표 4> 연대별 학위논문 수 및 비율

발행 연도	2002-2006	2007-2010	2011-2014	2015-2018	합계
논문 수	2	8	4	5	19
비율(%)	10.5	42.1	21.1	26.3	100.0



[그림 2] 학위논문 수의 연대별 추이

결과를 보면 2007-2010년에 가장 많은 8편(42.1%)의 논문이 발행되어 연구가 가장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술지 논문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후반에 연구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구가 활성화된 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던 학술지 논문과 비교해 볼 때 연구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지 못하고 도리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8년 이후에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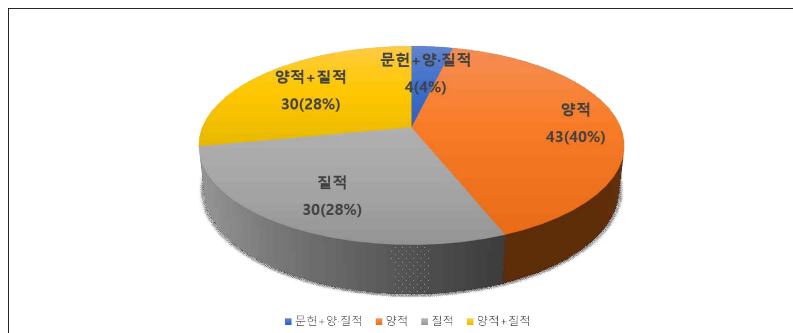
년 이후에 검색된 학위논문은 대부분 중고등학교의 중국어교육을 연구한 교육대학원 논문으로 본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2) 연구방법 분석

이어서 학술지 게재 논문의 연구방법은 <표 5>와 [그림 3]과 같다.

<표 5> 학술지 논문 연구방법별 논문 수 및 비율

연구방법	문헌+양·질적	양적	질적	양적+질적	합계
논문 수	4	43	30	30	107
비율(%)	3.8	40.2	28.0	28.0	100.0



[그림 3] 학술지 논문의 연구방법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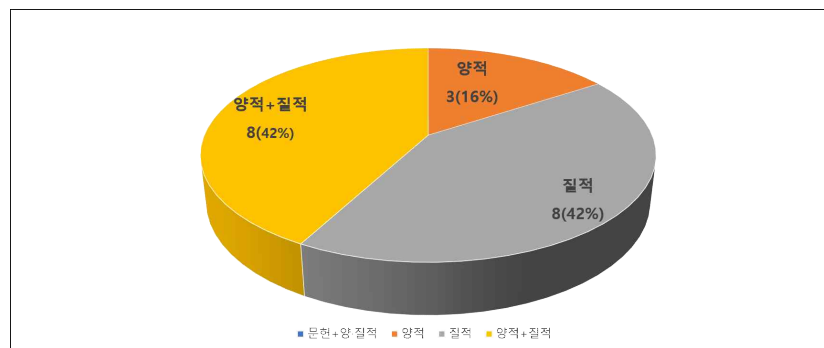
결과를 보면 양적연구가 43편(40.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질적 연구와 양적+질적연구가 30편(28.0%)으로 동률을 나타냈다. 반면 문헌+양·질적 연구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학술지 게재 논문은 양적연구 방법을 가장 선호하지만 질적연구, 그리고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혼합한 방법 역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학위논문의 연구방법은 <표 6>과 [그림 4]와 같다. 결과를 보면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질적 연구방법이 각각 8편(42.1%)으로 동률로 나타났다. 양적연구가 중심이 되는 학술지 논문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분석을 진행하며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교육안 설계 및 교육방법 제안과 같은 질적 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 6> 학위논문 연구방법별 논문 수 및 비율

연구방법	양적	질적	양적+ 질적	합계
논문 수	3	8	8	19
비율(%)	15.8	42.1	4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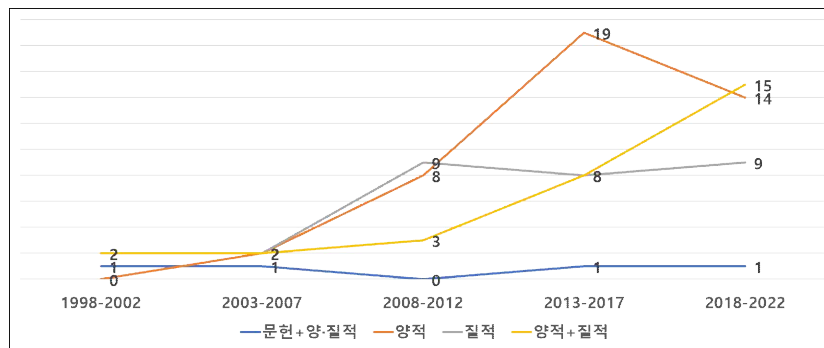


[그림 4] 학위논문의 연구방법 분석 결과

다음으로 학술지 게재 논문의 연구방법을 연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그림 5]와 같다.

〈표 7〉 연대별 학술지 논문 연구방법 분석

발행 연대		문헌+ 질적	양적	질적	양적+ 질적
1998-	논문 수	1	0	2	2
2002	비율(%)	20.0	0.0	40.0	40.0
2003-	논문 수	1	2	2	2
2007	비율(%)	14.3	28.6	28.6	28.6
2008-	논문 수	0	8	9	3
2012	비율(%)	0.0	40.0	45.0	15.0
2013-	논문 수	1	19	8	8
2017	비율(%)	2.8	52.8	22.2	22.2
2018-	논문 수	1	14	9	15
2022	비율(%)	2.6	35.9	23.1	38.5



[그림 5] 연대별 학술지 논문 연구방법 분석 결과

결과를 보면 연구 초기인 1998-2002, 2003-2007년에는 연구방법이 비교적 고르게 사용되다가, 2008-2012년에 양적연구(8편, 40.0%)와 질적연구(9편, 45.0%)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2013-2017년에는 양적연구(19편, 52.8%)가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질적연구와 양적+ 질적연구가 각각 8편(22.2%)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2018-2022년에는 양적+ 질적연구(15편, 38.5%)와 양적연구(14편, 35.9%)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질적연구는 9편(23.1%)으로 바로 전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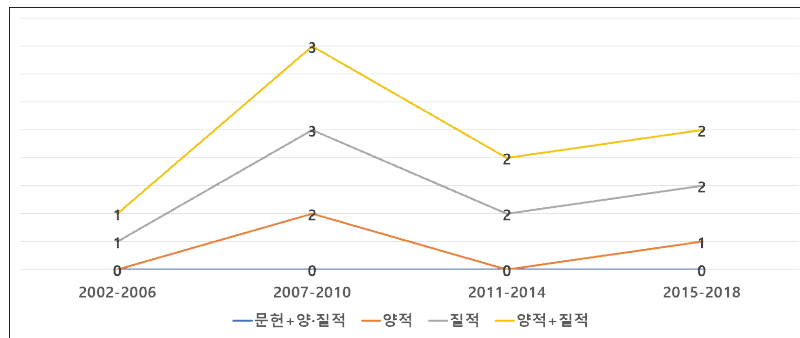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련 연구가 발전하면서 양적연구와 양적+

질적연구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방안의 제안이나 설계에 그치지 않고, 그 효과 및 만족도를 검증하는 연구와 학습자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는 조사연구가 증가하면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점차 균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위논문의 연대별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그림 6]과 같다.

<표 8> 연대별 학위논문 연구방법 분석

발행 연대		양적	질적	양적+ 질적
2002-2006	논문 수	0	1	1
	비율(%)	0	50.0	50.0
2007-2010	논문 수	2	3	3
	비율(%)	25.0	37.5	37.5
2011-2014	논문 수	0	2	2
	비율(%)	0	50.0	50.0
2015-2018	논문 수	1	2	2
	비율(%)	20.0	40	40



[그림 6] 연대별 학위논문 연구방법 분석 결과

우선 2002-2006년에는 질적연구와 양적+ 질적연구가 각각 1편(50%)이었고, 2007-2010년에는 질적연구와 양적+ 질적연구가 각각 3편(37.5%)으로 동률이었다. 2011-2014년에도 질적연구와 양적+ 질적연구가 각각 2편(50.0%)

으로 동률이었고, 2015-2018년에는 질적연구와 양적+질적연구가 각각 2편(40.0%), 양적연구가 1편(20.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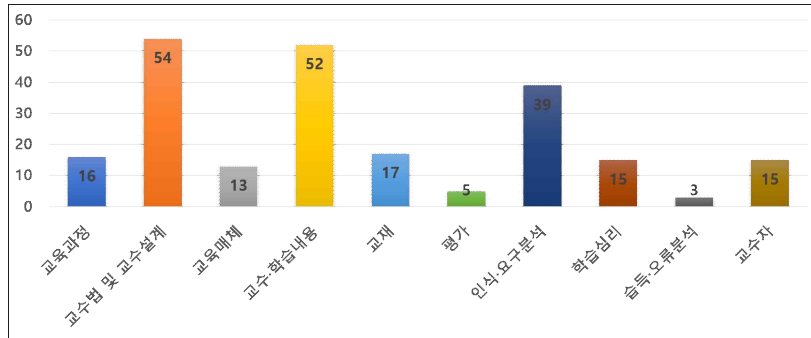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볼 때 연대별로 질적연구와 양적+질적 혼합연구 방법이 비교적 조화롭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술지 논문과 비교하여 양적연구의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 조사연구나 실험연구와 같은 관련 연구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주제 분석

마지막으로 교양중국어 교육 연구를 연구주제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서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분석기준의 10가지 주제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만약 한 편의 논문에 여러 연구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면 각 연구주제에 중복으로 속하는 것으로 집계하였다. 우선 학술지 논문의 연구주제별 분석 결과는 <표 9>와 [그림 7]과 같다.

<표 9> 연구주제별 학술지 논문 수 및 비율

	교육 과정	교수 법 및 교수 설계	교육 매체	교수· 학습 내용	교재	평가	인식· 요구 분석	학습 심리	습득· 오류 분석	교수 자
논문 수	16	54	13	52	17	5	39	15	3	15
비율(%)	15.0	50.5	12.1	48.6	15.9	4.7	36.4	14.0	2.8	14.0



[그림 7] 연구주제별 학술지 논문 분석 결과

우선 학술지 논문의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교수법 및 교수설계(54편, 50.5%)과 교수·학습내용(52편, 48.6%)⁶⁾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학습자 인식 및 요구분석이 39편(36.4%)으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교재(17편, 15.9%), 교육과정(16편, 15.0%) 등과 큰 차이를 보여 학술지 논문의 연구주제가 교수법 및 교수설계, 교수·학습내용, 인식 및 요구분석 등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평가(5편, 4.7%), 습득 및 오류분석(3편, 2.8%) 등의 연구는 비중이 매우 낮아서 관련 연구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연대별로 학술지 논문의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6) 교수·학습내용의 각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요소+기능)이 10편(18.5%), 중국어 요소 22편(40.7%), 중국어기능 15편(27.8%), 기타(문화, 핵심역량, 사전, HSK 등) 7편(13.0%) 이었다. 발음, 어휘, 문법, 한자 등의 중국어요소 관련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중국어기능 연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연대별 학술지 논문 연구주제 분석 결과

발행 연대		교육 과정	교수법 및 교수설계	교육 매체	교수·학습내용	교재	평가	인식·요구 분석	학습 심리	습득·오류 분석	교수자
1998-2002	논문 수	3	2	0	4	0	0	2	0	0	2
	비율(%)	23.1	15.4	0.0	30.8	0.0	0.0	15.4	0.0	0.0	15.4
2003-2007	논문 수	2	4	0	4	4	0	2	0	1	2
	연도내	10.5	21.1	0.0	21.1	21.1	0.0	10.5	0.0	5.3	10.5
2008-2012	논문 수	3	10	1	10	2	1	5	4	0	4
	연도내	7.5	25.0	2.5	25.0	5.0	2.5	12.5	10.0	0.0	10.0
2013-2017	논문 수	5	15	3	17	5	1	13	8	2	5
	연도내	6.8	20.3	4.1	23.0	6.8	1.4	17.6	10.8	2.7	6.8
2018-2022	논문 수	3	23	9	17	6	3	17	3	0	2
	연도내	3.6	27.7	10.8	20.5	7.2	3.6	20.5	3.6	0.0	2.4

우선 1998-2002년에는 교수·학습내용 관련 논문이 4편(30.8%)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정에 대한 논문이 3편(23.1%)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교수법 및 교수설계, 학습자 인식 및 요구분석, 교수자 요건 등에 대한 논문이 각각 2편(15.4%)씩 존재했다. 연구 초기부터 교육과정 뿐 아니라 교수법 및 교수설계, 교수·학습내용, 학습자, 교수자 등에 모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한 점이 인상적이다.

한편 2003-2007년에는 교수법 및 교수설계, 교수·학습내용, 교재 관련 논문이 각각 4편(21.1%)으로 고르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교재 관련 연구가 새롭게 등장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 외에도 교육과정, 학습자 인식 및 만족도, 교수자 등과 관련된 논문이 각각 2편(10.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8-2012년에도 교수법 및 교수설계와 교수·학습내용에 관한 논문이 10편(2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학습자 인식 및 요구분석(5편, 12.5%), 학습심리(4편, 10.0%), 교수자(4편, 10.0%) 등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부터 학습심리와 관련된 연구가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 시기에는 평가에 대한 연구(1편, 2.5%)도 처음 등장하고, 습득 및 오류분석을 제외한

모든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범위의 확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3-2017년에도 교수·학습내용 관련 논문이 17편(23.0%)으로 가장 많았고, 교수법 및 교수설계(15편, 20.3%) 관련 논문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인식 및 요구분석(13편, 17.6%), 학습심리(8편, 10.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학습자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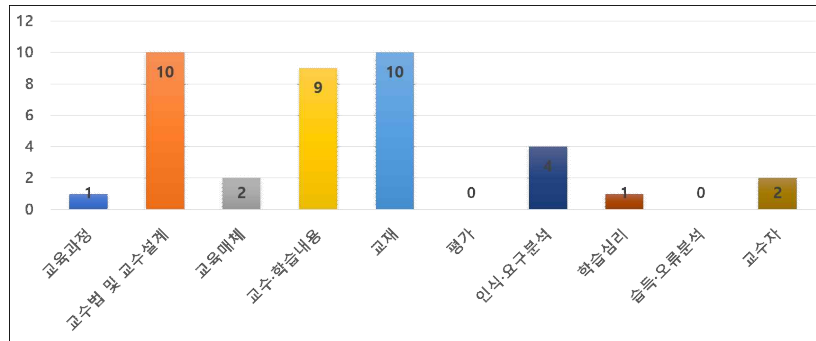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2018-2022년에는 교수법 및 교수설계를 연구한 논문이 23편(27.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교수·학습내용과 인식 및 요구분석 논문이 각각 17편(20.5%)으로 나타났다. 교수법 및 교수설계 관련 연구가 많이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자 인식 및 요구분석 연구가 함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매체(9편, 10.8%)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는데,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의 확산이 연구의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평가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많은 3편의 연구가 이 시기에 진행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연구 초기에는 교수·학습내용과 교육과정, 교수자 등에 초점이 맞춰졌고, 점차 교수법 및 교수설계, 학습자(인식 및 요구분석, 학습심리), 교육매체(온라인) 등으로 연구 주제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주제는 앞서 살펴본 연구방법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수·학습내용, 교수법 및 교수설계, 교육과정, 학습자 인식 및 요구분석 등과 관련된 논문 모두 2013-2017년, 그리고 2018-2022년 시기에 가장 많이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주제가 가장 활성화된 시기이며, 또 연구주제 간에도 상호보완적인 발전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학위논문의 연구주제별 분석 결과는 <표 11>, [그림 8]과 같다.

〈표 11〉 연구주제별 학위논문 수 및 비율

	교육과정	교수법 및 교수설계	교육매체	교수·학습내용	교재	평가	인식·요구분석	학습심리	습득·오류분석	교수자
논문 수	1	10	2	9	10	0	4	1	0	2
비율(%)	5.3	52.6	10.5	47.4	52.6	0.0	21.1	5.3	0.0	10.5



[그림 8] 연구주제별 학위논문 분석 결과

우선 교수법 및 교수설계, 그리고 교재 관련 논문이 각각 10편(52.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교수·학습내용 관련 논문이 9편(47.4%)이었다.⁷⁾ 학술지와 비교하여 교재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교양중국어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는 연구(4편)보다는 교재를 분석하여 관련 교육방안을 설계하는 연구(6편) 등이 더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학습자 인식 및 요구분석(4편 21.1%), 교수자 인식 및 요건(2편, 10.5%) 등의 연구 또한 확인할 수 있었지만, 평가 관련 연

7) 그 중 교수·학습내용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 3편(33.3%), 요소 5편(55.5%), 기능 1편(22.2%)이었다. 학술지 논문과 마찬가지로 중국어요소 관련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문화 및 핵심역량, HSK 등의 연구 또한 발견할 수 없어 관련 연구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구를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교육매체와 관련된 논문 또한 적은데 이는 2018년 이후 연구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술지 논문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에 온라인 교육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학위논문의 연구주제를 연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연대별 학위논문 연구주제 분석 결과

발행 연대		교육 과정	교수법 및 교수설계	교육 매체	교수·학습내용	교재	평가	인식·요구분석	학습심리	습득·오류분석	교수자
2002-2006	논문 수	0	1	0	2	1	0	0	0	0	0
	비율(%)	0	25.0	0	50.0	25.0	0	0	0	0	0
2007-2010	논문 수	1	4	1	4	3	0	2	0	0	1
	비율(%)	6.25	25.0	6.25	25.0	18.7	0	12.5	0	0	6.25
2011-2014	논문 수	0	2	1	1	3	0	2	0	0	1
	비율(%)	0	20.0	10.0	10.0	30.0	0	20.0	0	0	10.0
2015-2018	논문 수	0	4	0	2	3	0	0	1	0	0
	비율(%)	0	40.0	0	20.0	30.0	0	0	10.0	0	0

우선 2002-2006년에는 교수·학습내용(2편, 50.0%), 교수법 및 교수설계와 교재(각 1편, 25.0%)으로 나타났다. 교재 관련 연구가 초기부터 주목을 받은 것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2007-2010년 역시 교수법 및 교수설계와 교육내용(각 4편, 25.0%), 교재(3편, 18.7%)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인식 및 요구분석 연구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평가, 학습심리, 습득 및 오류분석을 제외한 모든 연구주제와 관련된 논문이 발행되어 연구주제가 다양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1-2014년에는 교재 관련 논문이 3편(30.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교수법 및 교수설계와 학습자 인식 및 요구분석 논문이 각각 2편(20.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5-2018년에는 교수법 및 교수설계 관련

논문이 4편(40.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교재 관련 논문이 3편(30.0%)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연구가 축소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학술지 논문과 비교할 때 학위논문 연구주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교재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2007-2010년 시기에 가장 많은 연구주제가 다양하게 수행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 학습심리, 습득 및 오류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육매체(온라인) 등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 단계로 진입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 본 연구는 국내 대학의 교양중국어 교육을 연구한 학술지 논문 및 학위논문을 분석하여 그동안의 연구동향을 고찰하였다. 2022년까지 발표된 관련 논문을 모두 수집하였고, 정리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연대별 양적 분석, 연구방법 분석, 연구주제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대별 양적 분석을 통해 학술지 논문이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중수교 20주년을 즈음한 2008년-2012년 시기에 급격히 성장했고, 2018-2022년에 비록 성장세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논문 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학위논문은 연구가 활성화 된 후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2018년 이후에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 분석을 통해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혼합한 연구방법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상대적으로 학술지 논문은 양적연구 방법을 선호하고, 반면 학위 논문은 질적연구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연구주제의 차이와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주제 분석을 통해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 모두 교수·학습내용, 교수법 및 교수설계, 학습자 인식 및 요구 분석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술지 논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습심리, 교육매체(온라인), 평가 등으로 연구주제가 다양화되고, 반면 학위논문은 교재 연구에 보다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주제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주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수·학습내용과 교수법 및 교수설계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영월(2021)과 같은 교양중국어 교육과정에 특화된 평가 설계 연구, 그리고 교재 연구 등이 다양하게 선행되어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향상 및 관련 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희창(2020), 이상도(2016)와 같이 시대적 흐름 및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 및 온라인 교육매체 연구 등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일한 연구주제 내에서도 연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설계연구 또한 비교과 과정과의 연계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교수자 관련 연구 또한 원어민 교수 연구에 다소 집중되는 경향을 넘어서 온라인 교육 시대에 맞추어야 할 교수자의 요건 및 능력 등을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교재의 경우도 교재 분석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구현아, 장린, 김영옥(2015), 최민희(2012) 등과 같은 교재 개발 연구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교수·학습내용에서도 중국어 요소 및 기능 교육 뿐 아니라 위수광(2020), 임연정(2022) 등과 같은 핵심역량, 고성연(2012)과 같은 문화, 이미향, 엄세환(2022) 등의 사전 사용 교육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양중국어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의 교류가 적어지면

서 중국어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낮아지고 관련 연구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할수록 관련 연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연구주제의 확대를 기반으로 시대 변화가 요구하는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석박사 학위논문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학술지 논문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학위논문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학위논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교재연구와 학술지 논문에서 보다 관심이 높은 학습심리나 교육매체 등의 연구결과를 서로 흡수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균형잡힌 교양교육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의 다양화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연구주제가 지금과 비교하여 보다 다양한 범위로 확대된다면 관련 연구방법 설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대부분의 양적연구는 학습자나 교수자의 인식 및 요구 분석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鄭蘭(2016)과 같은 실험연구 방법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지금보다 다양한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질적연구 또한 마찬가지로 학습자 인터뷰, 관찰 연구 등의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보다 풍부한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논문의 양적 추이, 초록 및 목차, 주제어, 연구방법 등을 통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각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앞으로 이 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중국어학 혹은 중국어교육 연구와 비교하여 교양중국어 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고를 바탕으로 동료 연구자들의 관련 연구가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

參考文獻

- 고성연, 「대학 교양 중국어 교재의 문화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구현아, 장린, 김영옥, 「예체능 계열 학생을 위한 교양 중국어 교재 개발 연구」, 『중국인문학회』 59: 167-198, 2015.
- 문유미, 「한중 중국어학 연구동향 실태분석 연구-학회지의 소논문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91: 241-262, 2015.
- 박경송, 심지인, 「한중 수교 20년 간 국내 중국어 기능교육 연구동향 분석」, 『중국어문논역총간』 32: 259-287, 2013.
- 박용진,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 논문에 대한 분석 - 1993~2004년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43: 303-317, 2005.
- 박은미, 위수광, 임춘영, 「한중 수교 20년 간 국내 중국어 문법 교육연구의 성과 및 향후 과제 : 대조분석과 오류분석을 중심으로」, 『중국어교육과연구』 16: 1-24, 2012.
- 성나영, 서연주, 「대학 교양 중국어 운영 현황과 내실화를 고려한 현실적 제언 탐색 - 충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67: 87-117, 2023.
- 신승희, 「교육대학원의 중국어교육 연구현황과 과제」, 『중국어언어연구』 19: 465-490, 2004.
- 양춘기, 최재수, 「한중 수교 20년간 국내 중국어 발음교육 연구경향 분석 - 연구 영역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76: 29-73, 2012.
- 오유정, 「현대중국어학 및 중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 2013년~2017년 《中國語文論叢》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89: 21-41, 2018.
- 오현주, 노수미, 「국내 중국어 어휘교육 연구 현황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논역총간』 32: 235-258, 2013.
- 유재원, 「중국어교육의 연구 영역 설정에 관한 고찰」, 『중국어언어연구』 26:

- 239-267, 2008.
- 유재원, 「국내 중국어교육에서의 오류분석 연구 현황과 과제」, 『중국어교육과 연구』 9: 45-74, 2009.
- 위수광, 「핵심역량 기반 교양중국어 교육과정 모형 개발」, 『중국어언어연구』 90: 355-380, 2020.
- 이계화, 김세리, 「한자 습득이 중국어 읽기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대학교 1학년 중국어 독해 초급과정을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17: 97-118, 2008.
- 이미향, 엄세환, 「중국어 사전 사용 교육에 대한 연구 - 초급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 『중국어언어연구』 103: 473-500, 2022.
- 이상도, 「스마트 기반 중국어 교육 방안 연구-스마트 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양 중국어 스마트 러닝 모델을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19(3): 110-136, 2016.
- 이영월, 「중국어와문학 비대면 온라인수업 과제 기반 평가방안 연구 -k대학 교양중국어 수업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57: 197-228, 2021.
- 이영호, 「中國語教育의 研究現況과 方向」, 『중국어문논역총간』 15: 297-335, 2005.
- 이현아, 김민채, 김영환,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연구 동향분석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교육연구』 16(3): 181-208, 2015.
- 임연정, 「블렌디드 러닝 기반의 교양중국어 교육이 핵심역량 향상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 『중국어문학논집』 133: 201-234, 2022.
- 鄭 蘭, 「낭독방식과 학습자의 내-외향성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정윤철, 「중국어 교육의 연구 영역 분류」, 『중국학』 41: 1-22, 2012.
- 조윤주, 한용수, 「중국어 교육 연구의 회고 및 방향」, 『외국학연구』 28: 221-249, 2014.
- 최금실, 오현주, 「한중 수교 20년간의 국내 중국어 문화교육 연구동향」, 『언어학연구』 18(2): 69-86, 2013.

- 최민희, 「대학 교양 중국어 교재 개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하명애, 「대학 교양영어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언어연구』 33(3): 453-476, 2017.
- 한나, 최선진, 「중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 한국중국어교육학회 《중국어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어교육과연구』 35: 19-39, 2021.
- 한희창, 「입문과정 중국어 수업에서 디지털 학습 보조 도구의 활용에 관하여」, 『중국언어연구』 89: 395-423, 2020.

Abstract

Analysis on the Research Trend Related to College Chinese Course for General Education in Korea

Lim, Yeon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search trend and also to seek for the future direction of researches by analyzing preceding researches on college Chinese general education.

With the fever of Chinese education that began in the early 2000s, the interest in college Chinese general education was raised, and there have been various relevant researches. In fact, however, it is lacking in the results of analyzing preceding researches, which could have negative effects on effective Chinese education.

Thus, this study understood the main flow and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results of researches related to college Chinese general education. This study collected total 107 journal papers and 19 theses, and then established the criteria of analysis based on preceding researches on Chinese linguistics, Chinese education, and other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conducted the quantitative analysis on each period, and the analysis on research method and research theme based on the analysis criteria, and sought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relevant researches in the future. Hopefully, this study could be helpful for the vitalization of relevant researches and the development of college Chinese educ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College Chinese Education, Researches on Chinese for General Education, Research Trend, Research Method, Research Theme

투 고 일 : 2023. 4. 10. / 심 사 일 : 2023. 4. 15. ~ 2023. 5. 15. / 게재확정일 : 2023. 5. 20.